



로봇저널리즘: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기사

Robot Journalism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영화나 소설 속에서가 아닌 현실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세돌 9단과의 다섯 번의 대국은 2002년 월드컵 경기만큼이나 뜨거웠고, 마치 이 대국이 인류의 미래가 걸린 마지막 성전인 것인 양 느껴지기까지 했다. 치열했던 다섯 번의 대국이 끝난 지금, 사람들은 저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기대감에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에 관해 이야기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은 이것이 많은 부분에서 인간을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영화 속 인공지능처럼 인간을 지배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자리가 잠식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있다. 내가 구매한 도서를 기반으로 새로운 책을 추천해 주거나, 메일함에 쌓인 스팸 메일을 걸러내는 기술 뒤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아직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

작년에 국내에 로봇저널리즘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 저널리즘 분야에도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와 hci+d lab에서 개발한 로봇저널리즘 알고리즘은 2015년도 한국 프로야구의 모든 경기를 자동으로 요약, 정리해서 뉴스 기사를 제작하였고, 2016년 2월부터는 매일 증시 시황 기사를 국내 일간지에 제공하고 있다.

알고리즘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로봇저널리즘 알고리즘은 야구나 증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원시데이터(raw data)를 수집한 후 이를 알고리즘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다. 그다음, 기사에 포함할 중요한 사건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컴퓨터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기사 작성에 걸리는 시간도 매우 빠르고 정확하다. LA Times에서는 지진 관련 기사를 로봇이 작성하는데, 지진이 발생한 후 0.3초 이내에 관련 기사가 송고된다. 재난 상황과 같이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증시 관련 기사와 같이 데이터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도 도움이 된다. 소수점 아래까지 숫자를 표기해야 하는 증시 기

사에서 숫자가 잘못 기재되는 일은 로봇저널리즘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로봇저널리즘은 개인화된 기사의 생성에도 활용될 수 있다. 사람과 달리 알고리즘은 개개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기사를 생성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내가 응원을 하는 야구 팀을 중심으로 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워치나 컴퓨터 모니터 등, 다양한 디바이스의 크기에 맞게 기사의 양을 조절하거나 한 번에 여러 언어의 기사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서울대학교의 증시 시황 기사 알고리즘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기사를 동시에 만들어 낸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로봇저널리즘이 기자라는 직업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겠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된다. 로봇저널리즘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다. 컴퓨터의 빠르고 정확한 연산 능력을 활용해 대용량의 정보에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분석하여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군다나 로봇저널리즘의 알고리즘은 아직 사람과 같은 통찰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기술이 더욱 발전하더라도 이는 요원한 일이다.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우리의 사고영역을 대체할 수는 없다. 다만 자료의 분류, 예측 등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만을 모방할 뿐이다.

따라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진실을 전달하는 저널리즘의 가치는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